둥근 보름달 맘껏 보세요

광주·전남 추석연휴 맑음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1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광주와 전남지역은 동해상을 지나 일본을 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추석(19일) 당일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0분으로, 구름 사이로 뜬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지만 대체로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한반도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탈북 청소년들이 지난 14일 광주시 광산구 송우초등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중 지도교사들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명절엔 北에 있는 친척들 더 그리워"

■ 광주 탈북학생들에게 추석이란

차례 지내고 나면 마땅히 갈 곳 없어

핸드폰게임에 열중하며 외로움 달래

탈북 학생들에게 추석은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 중 하나다. 명절에 찾아 갈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랜만에 고향 집에 모이는 친척들로 북적대는 명절 분위기도 느낄 수 없다. 이들에겐 오히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질 뿐이다.

14일 광주시 광산구 송우초등학교에서 열린 '힐링 캠프'는 송우초등학교 교사들이 탈북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

30여명의 탈북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어울리면서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명절의 정을 나눴다.

프로그램은 남한 사회 적응과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석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온 탓에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 사이에서 북한 추석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초등 2학년인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탈북자 이모(41)씨는 "북한에서는 형편에 맞게 돼지고기, 생선, 산나물 등 최소 3가지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리는데, 일부 부유층은 통닭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했다.

친척들이 아직 북에 남아 있는 일부 학생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남한에 온 지 2년 된 노모(11·초등 5년)군은 "북한에서는 성묘 후 친척들과 음식을 먹으며 추석을 보냈는데, 남한에서는 친척들이 없어 아버지랑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 빼고는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말했다.

"북에 남겨진 형제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탈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가위 떠오른 보름달에 빌 공통된 소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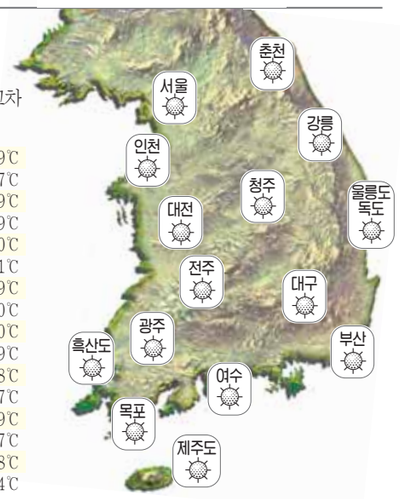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6분 해짐 18시 38분 | 달뜸 16시 18분 달짐 02시 28분

맑은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 보이겠다.

광 주	맑음	18/29℃
목 포	맑음	19/27℃
여 수	맑음	19/29℃
나 주	맑음	16/29℃
완 도	맑음	20/30℃
구 례	맑음	15/31℃
강 진	맑음	17/29℃
해 남	맑음	18/30℃
장 흥	맑음	17/30℃
순 천	맑음	14/29℃
영 광	맑음	16/28℃
진 도	맑음	19/27℃
전 주	맑음	16/29℃
군 산	맑음	16/27℃
남 원	맑음	14/28℃
흑산도	맑음	20/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경고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3.0m

	밀물	썰물
목포	11:12 --:--	04:41 16:47
여수	06:24 19:12	00:30 12: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날 씨						
최저/최고	17/29	17/30	18/29	18/28	19/28	19/28

광주역에서 車 빌려타세요

25곳서 카셰어링서비스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주)는 15일 전국 철도역 거점 기반의 카셰어링 서비스 'YOUCAR'(유카)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YOUCAR'는 V-train, O-train(중부내륙관광열차)의 분천역·철암역·영월역부터 서울역·대전역·부산역·광주역 등 주요 기차역 25곳에서 서비스 중이다.

이달 말에는 S-train(남도해양관광열차) 주요 정차역인 광주역~마산역 구간 등에서도 영업할 예정이다. 차량은 레이, 프라이드가 제공된다. 이용요금은 회원 할인가 등을 적용하면 4000원(소형차 1시간 기준)이면 가능하다.

한편,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건축사업소 보금자리사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13 제3회 행복나눔人'시상식에서 재능나눔·자원봉사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37.5 대 1 최고

광주여대 항공서비스 15대 1·남부대 물리치료학과 11대 1 경쟁

광주·전남 주요대학 수시 마감

201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대가 평균 경쟁률 4.85대 1, 조선대 5.41대 1, 광주과기원이 7.1대 1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약 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3일 마감한 수시 1차 모집 결과, 취업이 유리한 의료·보건계열의 경쟁이 가장 심했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항공서비스학과와 유아교육학과도 지원자가 몰렸다. 특히 올해는 군사학과가 두각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원하는 수험생들의 경향을 반영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학과 가운데 최고의 경쟁률은 조선대 경찰행정학과로 무려 37.5대 1이나 됐다.

의료분야 중 전남대 의예과는 7.46대 1를 보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학·석사 통합과정을 신설한 치의학과는 5.75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신대 한의예과는 16.9대 1로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간호학과는 조선대 27.1대 1, 송원대 20.7대 1, 호남대 10.3대 1, 광주여대 8대 1 등으로 수험생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여기에 물리치료학과는 남부대 11대 1·동신대 8.2대 1, 보건행정학과는 동신대 8.3대 1, 상담심리학과 조선대 19.25대 1·동신대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항공서비스학과는 광주여대 15대 1, 호남대 9.6대 1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유아교육학과에 대한 관심도 여전해 동신대 12.2대 1, 광주여대 12대 1, 남부대 11.4대 1, 광주대 10.3대 1이었다.

조선대학교 군사학과는 7.81대 1, 올해 첫 모집하는 동신대 군사학과는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이 올해는 보건·의료계열 학과와 사범계열, 직업 업무와 직접 연관된 실용학과 등에 수험생이 쏠리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중 광주과기원은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의 지원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호남대는 모집인원을 작년보다 400명 정도 늘렸는데 지원 인원이 1210명이나 늘어 경쟁률도 높아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추석 연휴 전국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의 진료공백을 막이 위해 일선 병의원 및 약국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형병원의 응급실 등 전국 548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또는 보건소는 읍면동별로 평균 1곳씩, 약국은 평균 2곳이 문을 연다. 복지부는 시군구 의사회·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당직의료기관(낮시간) 5250곳과 당번약국 7257곳이 이번 비상진료체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18일부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어린이 11가지 필수예방접종 무료

내년부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11가지 국가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다만 1회 접종당 드는 본인부담금 5000원은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와 1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로 지원해주지만, 경남·경북·충북·전남의 일부 시군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피내용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11종이다. /연합뉴스

영 광 군
영 광 군 의 회
의 장 나 승 만
부 의 장 김 봉 환
의회운영위원장 양 순 자
자치행정위원장 박 영 배
산업건설위원장 장 기 소
의 원 강 필 구
의 원 김 양 모
의 원 이 종 윤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
지부장 김 충 현
농협중앙회종돈사업소
소 장 유 명 상
영광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구 희 우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영 복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
지사장 정 민 혁
영 광 군 산 림 조 합
조합장 정 용 재
영 광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박 준 화
백 수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강 대 상
군 남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황 일 태
염 산 농 업 협 동 조 합
조합장 강 병 원
굴비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남 철
영 광 종 합 병 원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이사장 조 용 호
병원장 오 승 균
영 광 기 독 병 원
신 하 병 원
이 사 장 김 경 옥
기독병원장 이 만 재